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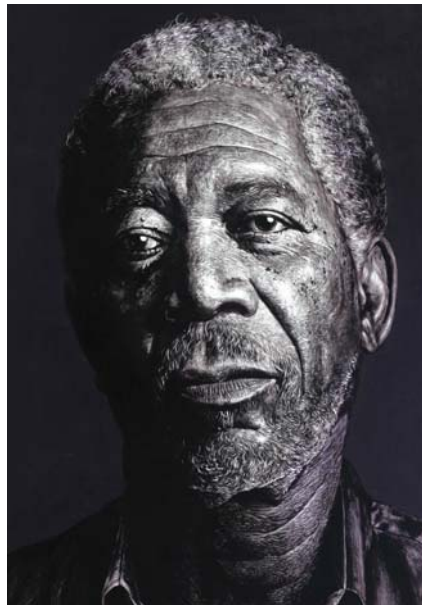
역동적인 파도의 시간 너머 평온한 삶의 시간

문창배 초대전 '시간' 한라일보 갤러리 이달 18일부터 두 달간

수술용 메스 이용 작업 거센 바다와 낮은 배우 "인고의 노동 수행 같아"



문창배의 '시간-이미지'. 외과용 메스로 물감 바른 표면을 수도 없이 긁어내는 과정을 거처 완성시켰다.



문창배의 '삶, 시간-이미지'. 우리에게 낮은 배우가 생의 깊이가 변 주름진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실재하지 않는 자연물을 실재하듯 그리며 시간의 감각을 성찰하도록 이끄는 동안 그의 몸은 남도를 고통을 겪었다. 어깨, 허리, 눈 등에 이상이 왔고 결국 몇 해 전 수술대 위에 누웠다. 정교한 붓질을 잠시 멈추려 작업 방식에 변화를 줬지만 그것 역시 고된 일이었다. 오히려 붓 작업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다.

의 풍파를 타고 넘은 노(老) 배우까지 영역을 넓혔다. 지난해 중점적으로 그린 '시간-이미지' 연작엔 검은 바위 사이로 파도가 솟구치고 있다. 예전 물 아래 잠긴 몽돌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 층층이 쌓인 자연의 시간을 떠올리게 만든다

각기 다른 메스를 이용해 표면을 수도 없이 긁어냈다. 자연의 시간 너머 삶의 시간도 불려냈다. '삶, 시간-이미지' 연작마다 영화에서 낮은 배우들이 보인다. 주름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정면을 응시하는 그들에게서 온갖 희로애락을 겪은 노년의 달관이 느껴진다. 대중적인 그 인물들은 지금 여기 희망 어린 삶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지 모른다. 문 작가는 "종전 작업이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향해가는 방식"이라고 했다.

의 흔적들은 회화적인 감각을 일깨운다"며 "이러한 과정들은 고도의 집중력과 인고의 노동을 수반하는 일종의 수행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작가는 중앙대와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두 차례 제주도미술대전 대상을 받았고 평택미술협회 소사범미술대전 대상, 제주 초계청년미술상, 남도문화재단 전국청년작가미술공모전 선정작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 부문 최우수상 경력 등이 있다. 현재 제주대 미술학과에 출강하며 한국미술협회 회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전시는 이달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개막 시간은 첫날 오후 3시. 전시장 연락처 064) 750-2543. 전시회기사 sunny@ihalla.com



문창배 작가.

붓 대신 외과용 메스를 잡고 새로운 형상의 '시간-이미지' 연작으로 한라일보 갤러리 이디(ED) 초대전을 펼치는 제주 문창배 작가다. '시간'이란 제목을 단 이번 초대전은 머지않아 이 50대의 문턱을 밟는 문 작가의 작업 여정에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 4년 만의 개인전에서 문 작가는 정적인 대상에서 역동적인 자연 현상 속으로 눈길을 돌렸고, 지난 세월

자본주의의 발달은 '시간은 돈'이란 생각을 낳았고 이는 개인들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찾아 누리도록 어렵게 만들어 왔다. 꽃 피고 지는 계절을 따라 우리네 생애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좋으련만, 환금성을 지닌 시간은 자꾸만 우릴 재촉하고 있다.

그같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시간을 포괄이 이는 이미지로 구현하기 위해 문 작가는 캔버스 위에 수차례 아크릴 물감을 바른 뒤 모양과 크기가

이경은 미술기획자는 이 전시에 부친 평문에서 "그의 파도 시리즈 작품들은 역설적이게도 1000분의 1초로 포착되는 사진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적 에너지와 수 만년의 중첩된 시간들이 작가의 사유 체계 안에서 숙성되고 또 그것을 더듬고 있는 작가의 그리기

영상산업진흥원장 연임 아닌 신임?

기준 미충족 연임 무산에 현직 원장 공개모집 지원 이사회 거쳐 최종 임명돼

상 상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대 원장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전국 공모가 진행됐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이 2대 원장에 임명됐지만 '연임'이 아닌 '신임'인 배경은 무엇일까.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10일 오전 김영훈 제2대 진흥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면서 2018년 출범 이래 초대 원장을 맡았던 김영훈 원장을 '신임' 원장이라고 칭했다. 이날 자료에서 임기 3년의 김영훈 '신임' 원장은 "진흥원이 제주 문화 콘텐츠 산업 이수 발굴과 새로운 문화산업 동력 확보의 바탕이 되어 지역의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응모 자격은 정부 출자·출연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원장 경력에 있는 자 등으로 정했는데 지난해 12월 11~28일 지원서 접수 결과 2월 11일까지 임기가 남은 현직을 포함 전국에서 7명이 응모했다. 별도로 꾸려진 임명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의 후보자를 진흥원 이사회에 추천했고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당연직 이사장인 제주도행정부지사가 차기 원장을 최종 임명했다.

이번 일은 김 원장이 연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공개모집에 참여해 선임된 결과다. 연임 무산에 따라 실시된 공모로 새로 임명된 만큼 '신임'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건상 연임이 안 된 응모자를 다시 원장에 앉히는 게 적절하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응시 자격 제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고 공모 절차에 따라 임명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면서 "다른 지역 일부 출자출연 기관에서도 이번처럼 연임되지 않았던 인물이 공모에 참여해 선발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 해체하고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며 출범한 기구다. 당초 2018년 4월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개원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진흥원은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며 출범한 기구다. 당초 2018년 4월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개원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진선회기사

제주 어린이 그림 콩쿠르 입상작 돌담갤러리 전시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이 제주특별자치도한일친선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도 제주 어린이 그림 콩쿠르' 입상작이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아오모리현의 후원을 받아 '내가 생각하는 일본! 가 보고 싶은 일본!'을 주제로 열렸다. 심사 결과 초등 저학년부 금상에 김진하(백목초 3)의 '일본여행의 추억'(사진), 초등 고학년부 금상은 신비(하귀일초 4) 어린이의 '고즈넉한 일본 풍경'이 각각 뽑히는 등 금상·은상·동상 6점, 입선 30점이 선정됐다. 이들에겐 상장과 도서상품권이 수여된다.

입상작 42점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돌담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진선회기사

문화가 쏘다

국립제주박물관 우수 인증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립박물관 36개관을 평가하고 국립제주박물관 등 우수한 26개관을 인증했다.

'초등 집공부의 힘' 자녀 특강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이 학부모 대상 '초등 집공부의 힘' 특강에 이어 이번엔 초등학교 3~4학년(2021년 새학기 기준)을 모집해 특강을 펼친다.

굴림문화회 '굴림문학' 28호

오현고 출신 문학인들로 구성된 굴림문화회(회장 김호성)가 '굴림문학' 28호를 펴냈다.

영주문학회 '영주문학' 발간

영주문학회(회장 이승학)가 아홉 번째 '영주문학'을 펴냈다.

이번 평가에서 26개관 중 16개 기관은 5개 평가 범주에서 80% 이상 달성도를 보였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8개관(경주, 공주, 광주, 김해, 대구, 전주, 제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수목원산림박물관(산림청) 등 10개 기관은 3개 이상 평가 범주에서 90% 이상 달성도를 나타냈다.

이달 22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 zoom을 활용한 실시간 강연으로 마련되는 특강은 '초등 집공부의 힘'의 저자 이진혁 교사가 강의를 맡는다. 아이들에게 집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는 자리로 이달 15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공공도서관 홈페이지로 선착순(50명) 모집한다.

이번 호 특집 하나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로 그의 '제주여행기'를 실었고 '르 클레지오와 제주 4·3'(김관후),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와의 대화-내가 만난 르 클레지오'(장일홍)를 담았다. 또 다른 특집은 창간 30주년 기념 '굴림문학 대표선집' 발간으로 꾸렸다. 이와 함께 시·시조, 소설, 수필, 평론 등 회원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호는 '초대 작가'들의 시로 열린다. 이해인의 '나무의 사랑법', 고경국의 '이사철에 내리는 눈', 양진형의 '그대 이름 속에' 등을 소개했다. '제주어 사랑' 특집도 만들어 회원들이 제주어로 쓴 '나, 늙은 보난', '장승이의 봄', '우리 어머님, 해녀여', '비바리의 꽃말', '지만 코스왓 헤그네'를 차례로 수록했다. 이와함께 회원들의 시와 수필 작품도 담았다.

적어라! 취 임 동백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백동문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진행하였고 약식으로 이·취임식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비대면 정기총회 : 2021. 2.5. 11시. 동백동문 밴드



제26대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김순신 (24기)

공로패 제24대 회장 고효자 (227기)

제26대 임원명단

수석부회장 김효신 (257기)	부회장 이영순 (247기)	부회장 이영희 (247기)	부회장 김정렬 (257기)	부회장 고옥자 (267기)	부회장 고창희 (277기)
----------------------------	--------------------------	--------------------------	--------------------------	--------------------------	--------------------------

감사 윤옥희 (237기)	장학차장 박선희 (367기)	섭외차장 이유정 (337기)	합창단 사무처장 박정미 (267기)
감사 강호경 (267기)	문화부장 강선희 (297기)	체육부장 현경혜 (257기)	골프동호회 회장 고영의 (257기)
사무국장 강은숙 (277기)	문화차장 김영란 (327기)	체육차장 문성희 (317기)	골프동호회 총무 고창희 (277기)
총무부장 김민자 (287기)	조직부장 양영록 (307기)	홍보부장 박여순 (287기)	간담추진위원 사무국장 양순자 (257기)
총무차장 강민경 (397기)	조직차장 김숙희 (327기)	홍보차장 이숙희 (357기)	간담추진위원 재무간사 김효선 (267기)
재무부장 박선희 (307기)	봉사부장 김추월 (267기)	장학재단이사장 임강자 (097기)	간담추진위원 행정간사 현영미 (317기)
재무차장 홍미혜 (367기)	봉사차장 김영미 (347기)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순자 (207기)	
장학부장 임혜숙 (297기)	섭외부장 이명옥 (277기)	합창단장 김경순 (137기)	

재경총동문회장 **김미복 (217기)** 부회장 **조윤아 (227기)**

이사(기대표)

18기	부경숙
20기	이백란
21기	임지윤
22기	최명숙
23기	정미정
24기	김경희
25기	강정옥
26기	유인심
27기	한덕수
28기	고숙희
29기	부명혜
30기	양성순
31기	김은경
32기	김진희
33기	이유정
34기	김봉희
35기	문정순
36기	오순미
39기	홍복심



제주여자중·고등학교 총동문회